

고령친화산업의 부상과 육성 방향



문혜선*

산업연구원 소재생활친화산업팀 연구위원

hsmoon@kiet.re.kr

1. 고령화사회와 산업 발전 과제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른 국가 중 하나로서 2020년에는 인간 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고령화는 노동 인력의 부족, 복지 비용의 증가, 세대 간 갈등의 증폭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노정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 볼 때도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은 산업 인력의 고령화, 노동 인력 부족 업종 발생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구 고령화는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신규 산업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고 고령자 수요에 기반한 기존 시장의 확대를 통해 산업발전을 견인해 갈 수 있는 기회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면서 의약, 헬스 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분야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사

* 저자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카네기멜론 대학교 초청 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의약산업의 혁신역량 진단 및 발전방향 연구(2012), 100세 시대 고령사회 산업 활성화 방안 (2012), 고령화 시대 향노화산업의 부상과 성장전략(2013)

레이다. 따라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우리 산업의 문제는 산업 인력 고령화 등 공급 측면에서 맞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부상하는 고령자의 수요를 어떻게 산업 발전으로 견인해낼 것인가에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산업 측면의 과제 중에서 고령화 사회의 환경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고령자 수요의 증가와 이로 인한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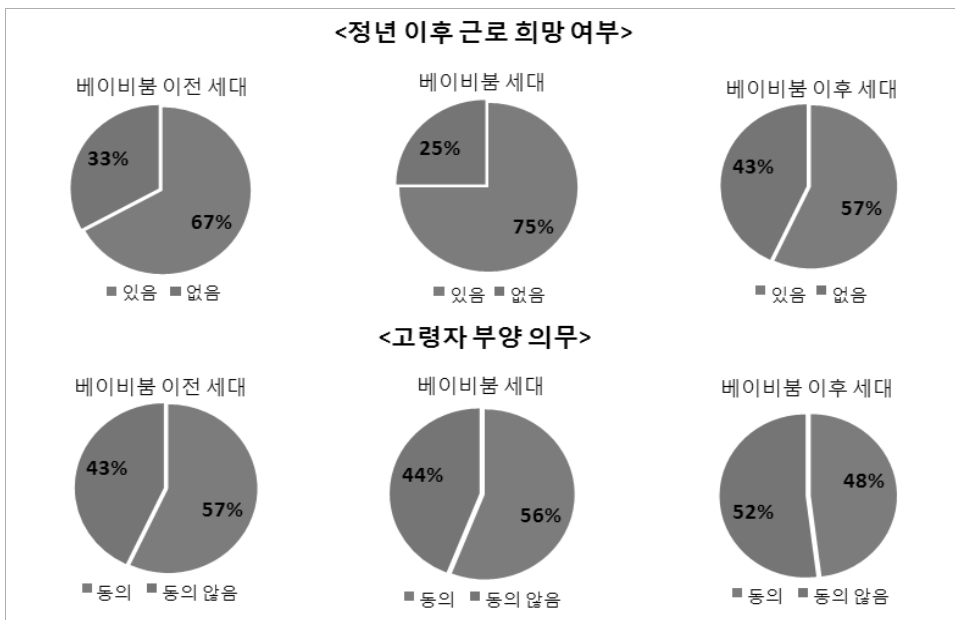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범주는 관련 정책 및 제도 또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고령자의 건강한 삶 영위를 지원하기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산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특히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고령화에 대한 대처는 고령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친화산업의 대상은 고령자를 포함하여 고령화에 대비한 모든 수요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볼 때, 고령친화산업의 범위는 “고령자 또는 향후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신체적·경제적·사회적 기능저하를 보완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제품 및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의 범위를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요 수요에 따라 구분한다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분류하여 볼 수 있다.

[표 1] 고령화 수요 유형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고령화 수요	관련 산업	주요 품목
질병 치료 및 신체적 기능 보조	고령친화 기기용품 산업	휠체어 등 이동지원기기, 재택진단 및 의료용 기기, 보청기 등 신체기능 보조 기기, 고정밀 영상진단기기
	고령친화 의약품 산업	신경계 의약품, 호흡계, 순환계, 대사성, 근골격계, 소화계 의약품
건강관리	항노화(Anti-aging) 산업	피부관리제품/서비스, 모발관리제품/서비스, 외모향상제품/서비스
	건강보조식품 및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노화방지/건강유지용 보조식품, 건강관리서비스
	U-헬스 및 홈케어 산업	원격진료서비스, 건강관리 홈케어
자산관리	노후준비관련 보험 및 금융산업	역모기지, 역모기지 외의 연금, 건강 및 간병 관련 보험, 자산관리서비스
문화 및 거주	실버 주거지 및 고령자 주택산업	고령자용 주택개조, 양로시설 공급, 실버(임대)주택 공급
	고령자 여가 및 관광산업	휴양단지/시설, 관광레저, 스포츠, 고령자대상 문화 콘텐츠(영화/게임/공연)
사회복지	노인 장기 요양산업	시설요양, 재가요양 서비스
	재교육 및 재취업 관련 서비스 산업	재취업 위한 재교육, 재취업 알선, 취미교육

3. 고령친화산업의 세대별 수요 차이와 전략적 유형

고령화사회로의 변화에 있어서 베이비부머 세대('55-' 63년 출생자)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주역이면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주요 계층으로서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산업 인력 구조의 변화, 소비 패턴 및 시장 환경의 변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가 높은 세대로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년 이후에도 경제활동의지가 높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의무도 높다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1] 세대별 근로희망 여부와 고령자 부양의무에 대한 인식

산업연구원(2011)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부머 세대들과 그 이전 및 이후 세대들은 고령친화산업에 대해서도 상이한 수요 기반을 가지고 있다.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들은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주로 신체적 기능 및 건강 저하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가장 높아 노인장기요양산업, 건강관리 및 식품 서비스, 고령친화 의약품 산업 등에 주요 수요 기반이 있는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경제적 안정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신체건강 저하에 대비한 건강관리 수요가 높다. 미래의 고령화에 대비한 베이비부머 이후의 세대들은 자산관리를 통한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 이 외에도 문화 및 여가 등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한편 고령친화산업은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육성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의 지원 및 육성 필요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공익성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산업연구원, 2011), 성장성 측면에서는 전 연령대에 걸친 수요기반을 가진 노인장기요양산업, 베이비부머 및 그 이후 세대에서 수요가 높은 자산관리 산업 등의 중요성이 높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고령친화 기기용품, U헬스 및 홈케어 등의 산업에 중요성이 높으며, 공익성 측면에서는 노인장기요양산업, 고령친화기기용품 산업 등에 우선순위가 있다.

4. 고령친화산업의 전략 유형별 발전 방향

앞에서 언급한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고령친화산업의 범주는 몇 가지 전략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해당 산업의 지원 및 육성 정책의 방향은 차별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산업의 경우 전 연령대에 수요가 높고 공익성도 높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수요에 바탕을 두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익성은 낮지만 베이비부머 및 그 이후의 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노후준비 관련 보험 및 금융산업, 고령자 주택 산업, 고령자 여가 및 관광산업 등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낮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젊은 층의 수요에 대비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다각화된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관리 서비스, 고령친화 의약품 등 건강관리 및 질병 치료와 관련된 산업은 수요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현재의 고령층이 주요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고령자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부합되는 구체적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만 아직까지 국내 수요 기반이 확충되지 않은 산업으로는 고령친화기기용품산업, U-헬스 및 홈케어 산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산업은 국내 수요 자체는 크지 않지만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 성장성이 높아 국가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따라

서 해외 수요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수요를 개척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는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재교육 및 재취업 서비스 산업을 들 수 있다. 이 산업은 산업 자체로서의 시장 규모나 타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낮지만 재취업 의사가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수요를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고령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2] 고령친화산업의 전략유형별 정책방향

유형	특성	산업	특성에 따른 정책방향
1유형	공익성, 시장성, 파급성이 모두 높은 산업	노인장기요양산업	전 연령대 높은 수요, 공익성 높음 -> 민간 수요에 바탕을 둔 차별적 서비스 개발 + 국가 차원의 지원 범위 확대
2유형	공익성은 낮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장성이 높은 산업	노후준비 관련, 보험 및 금융산업, 실버주거지 및 고령자 주택 산업, 고령자 여가 및 관광 산업	-국가의 직접지원보다는 젊은 층이 고령화에 안정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의 개발, 다각화된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공익성이 낮으므로 국가의 직접적 지원보다는 산업발전 위한 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시급성 높지 않으나 미래시장에 대한 잠재수요에 대비
3유형	공익성은 낮지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시장성이 높은 산업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관리서비스, 고령친화의약품 산업	-수요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현 고령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 시의성 중요 -고령자니즈를 명확히 파악하고 수요 개발 필요
4유형	파급성이 높지만 시장성이 낮은 산업	고령친화기기용품산업, U-헬스 및 홈케어 산업, 향노화산업	-국내 수요 크지 않지만 파급성이 커서 국가 전략 산업 역할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 -> 해외 수요 개척, 해외 시장 니즈 파악, 국제 기준에 맞는 기술 및 제품 개발
5유형	시장성, 파급성은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산업	재교육 및 -재취업 관련 서비스	-공익성 높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고령자의 전문성, 경력을 활용한 재교육, 재취업 서비스 지원 필요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20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새로마지플랜」
- 산업연구원(2011), 베이비붐 세대 은퇴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 보건복지부(2011),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와 미래, 무엇이 문제인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 통계청(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